“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성경 해석 원리 중 점진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여 주셨다. 먼저 쓰여 진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후에 기록된 책에서 완성되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 한다. 가령 구약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원리적이고 많은 말씀이 없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길게 설명되고 있다. 속죄 교리도 구약에서는 대속의 구원을 짐승을 죽임으로 설명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구원 성취를 말씀한다. 때로는 구약이 신약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되며”라는 말씀이 시편 37편에서 다섯 번이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임이요”라고 하셨다. 시편 37편은 천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해설하고 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은 짧고 악인의 고난은 영원하며 악인의 형통은 짧고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의인 곧 온유한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악을 쓰며 자기만 살려고 하는 시대에 “남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선포한다.

누가 온유한 자인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즉 의인을 희생 제물로 삼고 악인이 득세할 경우 우리는 더욱 괴롭다. 두 가지 대답을 준다. ①위를 보라 ②앞을 보라는 것이다. 악한 자나 자신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만 눈을 뜨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믿으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중생 없는 칭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며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은 의로운 행위를 일으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들 중엔 하나님은 도덕주의자, 심판하시고, 자기 목적만 이루어 즐기려 하는 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권을 갖고 경외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그에게 있음을 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사랑, 동정, 친절의 완성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리워하지 않고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 할 수 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라는 것이다. 수학자며 철학자인 Braise Pascal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어떻게 머물려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다” 했다. 잠잠하는 것만 아니고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분을 그치고 노는 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긴 성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묵하며 안정을 유지하고 경건한 온유한 자가 된다.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내세의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의인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입은 지혜를, 혀는 공의를 말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정도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곧 의인의 복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타인의 영적 유익에 초점을 맞춘 온유한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630호] 2019년 2월 1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yung Won Jang]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1-3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Meaning of the Church”	Pastor
* Hymn	263 (I hear the Savior Say)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sid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야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제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정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29권 제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9년 2월24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

■ 롬 6:1-1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번은 ‘칭의’에 대한 설명이며 선포입니다. 칭의란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칭의는 심판 날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번에, 완전하고 결점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1. 죄에 거하게 되면 (롬 6:1-2)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감소되거나 보류되지 않습니다. 죄에 다시 빠졌기 때문에 주시려던 은혜를 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결코 죄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2.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죄의 다스림에서 자유를 주시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은혜는 죄까지 다스립니다.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해 노예처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선택 받은 자요, 구속 받은 자로서 중생케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고 말씀합니다(롬 6:2).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롬 6:6). 다시 말해서 죄악 된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함은 죄의 나라에서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다’ 라는 말씀입니다.

4. 성화 교리(롬6:12)

사도 바울은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는 죄를 혐오하고 의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화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5.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성화의 단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전투하는 군인처럼 혼련하고 강하여지며, 그리스도를 쫓는 군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맺는 말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의로 돌이킴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 구원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 영혼 구원 위해서라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선택, 구속, 중생, 성화, 영화를 주신 새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성품이,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17-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9(시 1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8(2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7:1-13, 24-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죄에 대한 승리"··· 이종윤 목사
(Triumph over Sin)
* 찬 송 Hymn ·····260(19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김의창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18:28-29 ····· 인 도 자
찬 송 ····· 321(351) ····· 다 함 께
기 도 ····· 이강인 집사
성 경 ····· 시130: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는도다" ··· 설 교 자
* 찬 송 ····· 413(47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박수옥 권사
성 경 ····· 삼상 30:1-2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3)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뵈뵈 전도회 월례회 / 24일(주) 오후 12시40분 101호
2. 2교구 모임 / 25일(월) 오후 12시 글래드호텔 강남 코엑스센터(삼성역 1번 출구)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이종욱(진검)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5명	229명	176명	1,280명	13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17일	헌 금	26,519,050	
	특별예배비		500,000
	교회학교운영비		1,305,1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66,500
	통 신 비		813,940
	수도광열비		267,000
	차량유지비		491,565
	소모품비		22,260
	환경유지비		121,800
	수선유지비		125,000
	식당운영비		1,303,850
	합 계	26,519,050	5,967,015